

# “연아언니 처럼 될래요”

## 국가대표 상비군 나주초등 박소연 환상연기 전국피겨 중별선수권, 대회 최고점수 우승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소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전남 나주초 박소연(6년)양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5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중별선수권에서 대회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인 박소연은 5일 강원도 강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여자부 싱글 B조에서 총점 115.69점(쇼트 41.58점, 프리 74.11점)을 얻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부 싱글 B조 부문에 단독 출전한 박소연은 이날 처음으로 트리플 2개를 깔끔하게 성공한 것과 중·고·대학부 선배들을 제치고 대회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두가지 점에서 더욱 뜻깊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 후 박소연은 “감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우승하게 돼 기쁘다”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재했던 트리플 2개를 성공해 더욱 기분 좋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또한 박소연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연아언니처럼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피겨선수 생활을 시작한 박소연은 문광부장관기,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 2007년 피겨꿈나무(국가대표 상비군 전단계)에 선정됐다. 이 후에도 꾸준한 훈련으로 초등부 정상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전국남녀랭킹대회 주니어부 우승과 지난 1월 종합선수권대회 종합 2위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혔다.

또한 지난 2월 열린 동계체전에서 전남대표로 출전, 전종별 최고 점수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면서 고향에 금메달을 선물하기도 했다.

겨우내 서울 태릉아이스링크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동계훈련 캠프를 차렸던 박소연은 오전엔 스케이팅, 오후엔 점프와 체력단련 등 지상훈련으로 하루 7~8시간씩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려 왔다.

박 양은 내달 6급(현재 5급)으로 진급 테스트를 받은 후 오는 6월 미국 LA로 한달간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



5일 강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5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중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박소연이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프로야구 두산 대 기아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잠실야구장 관중석이 야구팬들로 가득차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출발부터 안풀리네



## 팀 플레이 실종... 2009 시즌 개막 두산에 2연패

“잠실공에 발목 잡힌 호랑이”

KIA 타이거즈가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3으로 제 2연패로 2009시즌을 맞이했다.

전날 김동주의 결승타에 침몰했던 KIA는 5일에도 1점차로 뒤지던 8회말 터진 김동주의 1타점 2루타에 추격 의지가 꺾이며 1-3으로 패했다.

양팀은 경기 초반 홈런을 주고 받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2회말 KIA가 먼저 홈런을 내쳤다. 최준석과 왓슨에게 연속 삼진을 뺏은 선발 양현종이 2사에서 두산 손시헌에게 중전안타를 맞

은 뒤 최승환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0-2가 됐다.

4회초 이번에는 KIA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선두타자로 나온 나지완이 정재훈의 직구를 받아 시즌 1호 홈런을 만들며 1점차로 따라 붙었다.

초반 홈런 공방전을 벌인 양 팀은 이후 마운드 싸움을 펼치며 1점차 승부를 이어갔다.

5회말 2만8천여 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명승부가 펼쳐졌다. 2사 1·2루에서 양현종이 두산 김현수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내주며 만루의 위기를 맞았다.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전날 경기에서 싸웠던 3타점 2루타로 KIA를 울렸던 ‘거포’ 김동주.

조범현 감독은 투수를 손영민으로 교체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마운드를 넘겨받은 손영민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끝에 김동주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5회를 마무리 지었다.

선발로 마운드를 지킨 양현종은 4와 3분의 2이닝동안 21명의 타자를 상대해 4피안타 2사사구로 2실점 하며 패전 투수가 됐지만, 7개의 삼진을 뺏어내는 등 호투하며 올 시즌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손영민도 2와 3분의2이닝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은 깔끔한 투구로 중간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한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인 로페즈는 3분의

2이닝동안 2피안타로 1실점하며 후반 신고식을 치렀다. 8회 1사에서 등판한 로페즈는 첫 상대 김현수에게 3루타를 맞은 뒤 김동주에게 2루타를 맞으며 1실점했다.

타선의 침묵으로 마지막 반격에 실패한 KIA는 7일 SK 와이번스와의 광주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리게 됐다.

한편 KIA는 앞선 4일 개막전에서는 에이스 윤석민을 내고도 5-7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1-1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5회, 선발 윤석민이 연속 삼진으로 투 아웃을 잡은 뒤 5개의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면서 한 이닝에만 5실점 하면서 무너졌다.

KIA는 2-6으로 뒤지던 8회 나지완의 적시타 등을 묶어 3점을 따라잡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5-7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열심히 뛰자”... KIA ‘농군패션’

KIA 타이거즈가 승리를 위해 바지를 끌어붙였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4일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전에서 유니폼 바지를 걷어 올리고 검정 스타킹을 올려 신은 이른바 ‘농군패션’(사진)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고참 이종범은 물론 마운드 위의 윤석민,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에 이르기까지 KIA 전 선수는 무릎까지 검정 스타킹을 올린 채 그라운드에서 승리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선보였다.

이날 패션을 제안한 건 주장 김상훈이었다. 올 시즌부터 팀을 이끌게 된 주장 김상훈은 열심히 뛰어보자는 의미로 선수들에게 ‘농군패션’을 명했고, 선수들 모두 한마음이 돼 바지를 끌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뜨거운 열원과 달리 KIA는 믿었던 선발 윤석민이 무너지면서 5-7로 석패, 2005년 이후 5년 동안 개막전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KIA의 ‘농군패션’은 시즌 두 번째 경기인 5일에도 이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관록의 삼성, 챔피언 첫판 잡았다



## 현대 3-0 완파...V리그 2연패 시동 여자부 GS칼텍스, 흥국생명 꺾어

관록의 팀 삼성화재가 2연패를 향해 함차게 시동을 걸었다.

삼성화재는 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남자부 1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3-0(25-22 25-22 25-22)으로 완파하고 기선을 제압했다.

지난 시즌까지 네 차례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세 번 우승컵을 들었다.

‘바다’를 장악한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의 ‘높이’를 또 한 번 무력화시켰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 5승2패로 앞섰던 자신감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몸을 아끼지 않는 거미줄 수

비로 현대캐피탈의 공격을 잡아냈고 ‘크로아티아 특급’ 안팎코의 강력한 한 방으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해결사’ 안팎코는 양팀 합쳐 최다인 31점을 내리꽂고 앤더슨(17점)과 대결에서 완승, 최고 용병임을 재차 입증했다.

안팎코와 손재홍(10점) 쌍포가 일찍 폭발해 1세트를 쉽게 가져온 삼성화재는 2세트 20-19에서 손재홍이 어렵게 살린 공을 안팎코가 재차 있게 연타로 넘겨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를 벌였고 신선호가 서브 에이스로 시원하게 마무리, 승기를 잡았다. /연합뉴스

신선호는 이날 4점만 올렸지만 승부의 분수령이던 2세트에서 강력한 서브로 현대캐피탈의 리시브를 흔들며 승리에 앞장섰다.

기세가 오른 삼성화재는 3세트에서 18-12까지 앞서다 현대캐피탈의 거센 추격에 23-22까지 쫓겼으나 안팎코가 잇달아 타치 아웃 2개를 성공, 대미를 장식했다.

2차전은 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에서는 GS칼텍스가 라이벌 흥국생명을 꺾고 올 시즌 통합우승을 향해 상쾌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GS칼텍스는 지난 4일 인천 도원시립체육관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도미니카 특급’ 테라크루트의 맹활약을 앞세워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0(25-22 25-11 25-20)으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 이승엽 첫 홈런포 임창용 첫 세이브

일본 프로야구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올 시즌 두 번째 경기만에 시즌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아시아 홈런 킹’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이승엽은 4일 도쿄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개막 3연전 중 2차전에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2회말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마에다 겐타의 2구째를 그대로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한편 임창용(33·아쿠르트 스왈로스)은 5일 교세라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7-6으로 앞서던 9회말 등판, 네 타자를 맞아 안타 1개를 내줬지만 나머지 타자들을 잘 막아내 첫 세이브를 따냈다. /연합뉴스